경찰이 이래도 되나

향응·금품수수·횡령에 근무중 도박
개인정보유출·불건전 이성교제까지
광주·전남 올들어서만 46명 적발

향응과 금품 수수, 횡령은 기본. 도박, 근무 중 주식 투자, 사건 방치, 개인 정보 불법 조회, 불건전한 이성 교제에 만취운전까지…. 광주·전남 경찰 비리가 천태만상이다.

김 현 민주당 의원이 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경찰관 비위행위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광주·전남 경찰 46명이 비위 행위로 적발돼 파면·해임·강등·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인 비위 행태로만 보면 '국민이 믿고 따르는 경찰', '국민 눈높이에서 일하겠습니다'라는 경찰 슬로건과는 전혀 딴판이다.

전남청의 경우 A 전 경위가 지난 1월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 파면처분된 것을 시작으로, 포커·훌라 도박, 사건 방치·지연, 근무 중 주식 거래, 불건전·부적절한 이성교제, 합의 요구 등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월례 행사'처럼 잇따라 파면·해임·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음주 운전을 하는가 하면 순찰 근무를 하지 않다 적발되고,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한 직원들도 있었다.

전남청은 지난해에도 상급자에게 욕설하며 대들었다가 해임처분된 직원부터 허위보고서 작성, 술에 취한 채 민원인과 시비, 신고 묵살, 공갈, 금고 털이, 개인정보 사적 조회, 유류비 횡령에 건강보험료 유용, 향응 접대 등 58명이 비위 행위로 적발돼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광주청도 올 8월까지 직원급여를 담당하면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직원 등 9명을 적발했고 지난해에도 불건전한 이성교제, 음주운전,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민원인 욕설 등의 행위로 11명의 직원들을 징계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찰관이 2008년 801명, 2009년 1169명, 2010년 1154명, 2011년 1257명, 2012년 1166명 등으로 매년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경찰차 교통사고 확 늘었네

광주·전남 올 132건…안전의무 불이행 최다

경찰차 교통 사고가 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경찰 차량도 급증하고 있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6일 내놓은 '2009년부터 5년간 경찰차량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차량 교통사고(보험사 접수 가해사고 기준)는 광주의 경우 2011년 29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8건으로 급증한 뒤 올 8월 말까지 6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사고 원인별로는 올해 발생한 67건의 사고 중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진 중 사고 10건 등이었다. 전남청도 2011년 62건에서 올 8월 말 6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의 '지방청별 경찰차량 과태료 현황' 을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지난 2009년 68건이 적발돼 345만7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지난해에도 86건이 적발됐고 올 8월 말까지 59건의 교통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지난 2009년 이후 올 8월까지 납부한 범칙금만 172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청도 지난 2009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경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42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전남청의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09년 116건 ▲2010년 142건 ▲2011년 193건 ▲2012년 199건 ▲2013년 8월 말 213건 등으로 급증 추세다. /김지을기자 dok2000@

"원전비리 한수원 직원 1억씩 챙겼다"

국감자료 분석…45명이 총 46억3600만원 받아

원전 건설·운영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사한 이후 최근까지 각종 원전 비리에 연루된 한수원 직원들의 평균 금품수수 액수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구속·불구속·약식 기소된 한수원 현직(수사당시) 직원은 총 58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전원상실사고 보고 은폐, 입찰방해, 보상금·구매대금 횡령을 제외하고 순전히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직원은 모두 45명으로 이들이 받은 돈의 합계는 46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원 한 명당 약 1억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 통계로 나온 중·하위직 공무원의 평균 수뢰액이 130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7~8배에 달한다.

금품수수 직원 중 상당수는 2011년 울산지검의 원전 부품 납품비리 수사, 올해 1월 발표된 광주지검의 원전 부품 품질보증서 위조비리 수사, 그리고 지난 5월 원전 3기의 가동 정지 사태를 몰고온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수사로 적발됐다. /연합뉴스

고흥군 고흥항공센터에서 지난 4일 열린 '2013 인간동력항공기 경진대회'. 울산대 UOU-ARG 팀의 'UWINS' 기체가 하늘을 날고 있다.

새처럼 날고 싶다…단 1초라도

고흥 인간 동력 항공기 경진대회 성료

'1초'. 선강민(17·고3) 군 등 한국과학영재고 학생 20명이 만든 '이니스프리'(ENISFREE)호가 고작 20m를 날며 하늘에 머무른 시간이다. 수백만원을 쓰면서 6개월 동안 달라붙어 만든 비행기가 낸 성적 치고는 초라해 보였지만 이들의 환호성과 웃음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2013 인간동력항공기 경진대회'가 열린 지난 4일 고흥군 고흥항공센터는 인간의 힘만으로 날고 싶어하는 10개 팀 500여명의 열기로 뜨거웠다.

인간 동력 항공기 경진대회는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사람의 다리 힘만으로 지상을 활주, 이륙해 새처럼 하늘을 나는 것을 겨루는 대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 서울대, 전북대, 인하대 등 8개 대학팀과 고등학교 2팀 등 11개 팀이 인간의 한계에 도전했다.

150m 이상을 비행한 팀을 1차로 가려낸 뒤 400m 활주로를 누가 더 빨리 날아가는지를 겨루는 경기지만 시범비행팀으로 참석한 항우연(291m)을 제외하면 1차 예선 통과팀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을 날겠다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 참여 팀 '조종사' 들은 쉴 새 없이 페달을 굴려 프로펠러를 돌렸고 '윙맨' 수십여명은 하늘로 날아오를 때까지 날개를 잡아주며 달리다 속도를 못 이겨 땅바닥에 굴렀다.

예선 통과라는 목표 달성을 이루진 못했지만 참가한 팀원들 모두 찰나의 비행에도 만족함을 나타냈다.

울산대 UOU-ARG 팀의 경우 자신들이 만든 'UWINS' 라는 비행기가 130m를 날면서 기쁨은 한층 더했다. 건국대 라파예트 팀의 정구문(20·항공우주공학 1년)씨는 "하루 전 도착해 밤새 부품들을 조립하고 수정하느라 잠 한숨 못 잤다"면서 "내 손으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난 걸 생각하면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했다.

/글·사진=박정렬기자ha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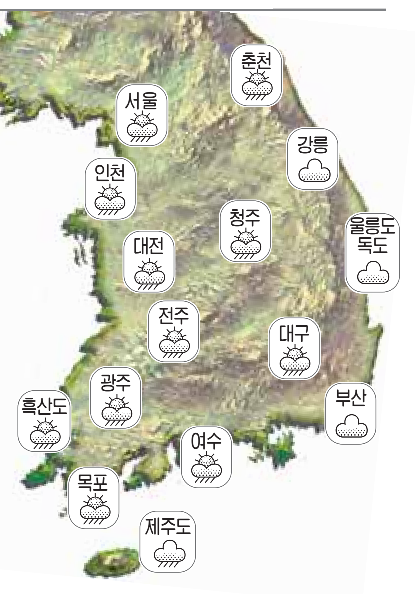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32분 / 해짐 18시 08분
달뜸 08시 37분 / 달짐 19시 32분

우산준비

대체로 흐리며 비 오는 곳 있겠다.

광 주	흐리고 한때 비	20/27℃
목 포	흐리고 한때 비	19/26℃
여 수	흐리고 한때 비	21/25℃
나 주	흐리고 한때 비	19/27℃
완 도	흐리고 비	21/27℃
구 례	흐리고 한때 비	19/27℃
강 진	흐리고 한때 비	20/27℃
해 남	흐리고 비	21/27℃
장 흥	흐리고 한때 비	20/27℃
순 천	흐리고 한때 비	18/26℃
영 광	흐리고 한때 비	18/27℃
진 도	흐리고 비	21/27℃
전 주	흐리고 한때 비	20/28℃
군 산	흐리고 한때 비	19/26℃
남 원	흐리고 한때 비	18/27℃
흑산도	흐리고 한때 비	19/2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1.5~2.5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증지수
경고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1.5~2.5m

	밀물	썰물
목포	03:18 15:51	08:30 20:57
여수	10:21 22:30	03:49 16:2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날 씨						
최저/최고	20/24	18/24	17/25	18/23	13/24	12/25

10월 태풍 '다나스' 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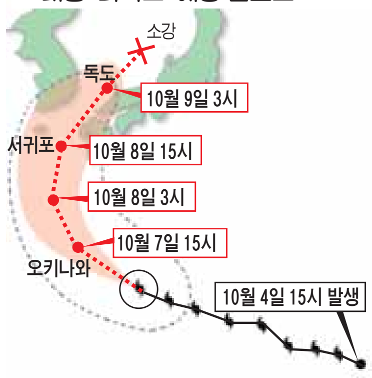
내일 새벽 서귀포 해상 접근…광주·전남 비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제24호 태풍 '다나스(DANAS)'가 북상함에 따라, 8~9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6일 예보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10월 태풍'은 1998년 이후 15년 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나스가 8일 새벽 3시께 제주시 서귀포 남쪽 약 500㎞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면서 광주·전남지역에 20~70㎜의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나스가 따뜻한 오키나와 바다를 지나며 세력을 점점 키우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지날 때면 최대풍속이 초속 34m, 강풍반경 300㎞의 강한 태풍으로 성장할 전망이라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태풍 '다나스' 예상 진로도



학교법인 송암학원 정상화

7년만에 정이사 9명 선임

광주 진흥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송암학원이 7년만에 임시이사 체제를 벗고 정상화됐다.

광주시교육청은 6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교법인 송암학원에 대한 정상화를 의결함에 따라 정이사 9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송암학원은 최근 설립자 유족, 교직원, 동창회 등 이해관계인 대다수가 정상화 계획에 찬성함으로써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